지난주 예배 출석 및 모임 통계
Statistics and Worship Attendance Last Week

구분	부서	이름	장소	인원	소계	합계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1 2 3 4 부 Adults	스프링		78	858	1042
		스트림		157		
		리버		172		
		오션		163		
		라이트하우스		115		
		향동캠퍼스		53		
		방문자등		120		
	교회학교 Sunday School	영유아부	101호	13	184	
		유치부	3층소예배실	31		
		유년부	5층 예배실	29		
		소년부	7층 예배실	30		
		청소년부	5층 예배실	50		
		향동교회학교	향동캠퍼스	31		
주일오후 Sunday Afternoon service			2층 대예배실	115		
수요예배 Wednesday night service			2층 대예배실	106		
토요기도회 Saturday night prayer			2층 대예배실	136		
실버스쿨 Silver school for the aged			5층 예배실 (화) 오전 9:30	한시적 연기		
직장인예배 Wednesday worker's service			6층 채플실 (수) 오전 12:00	매월 마지막주		

새벽예배 Early morning services	월	화	수	목	금	토	주간합계
	94	98	109	108	112	106	627

돕고있는 형제교회 및 선교사
Brother's Church and Missionaries Helping

국내선교 (4) Local Mission
- 상주교회 (주용은)
- 시내장로교회 (최정관)
- 예닮교회 (조원혁)
- 주안교회 (엄명섭)

해외선교 (3) Overseas Mission
- 대만 (김성문/조숙순)
- 키르키즈스탄 (정치훈)
- 태국 & 미얀마 (권동환/김연범)

기관선교 (2) Christian Institution Mission
- 총회북한선교
- 나사렛대학교

각교회 전도목표

구분	스프링	스트림	리버	오션	라이트하우스
전도목표	52	52	52	52	52
누계	1	5	3	1	0

지난 주 헌금현황

지난주 헌금 총액	53,768,000 원	지난주 지출 총액	20,682,673 원
헌금 총액 누계	1,049,256,837 원	지난주 지출 누계	1,013,224,561 원
지지난주 잔액	2,946,949 원	지난주 잔액	36,032,276 원

2026년도 등록 새가족 New Registered Members of Our Congregation in 2025

순번	이름	주소	선교회	인도자	등록일
4	강○현	상암동	309남선교회	스스로	1월 18일
5	양○예	상암동	309여선교회	스스로	1월 18일
6	태○순		624여선교회	김태희	2월 8일
7	유○진	상암동		김태희	2월 8일
8	고○희	상암동	470여선교회	스스로	3월 1일
9	장○균	상암동	400남선교회	스스로	3월 1일
10	이○진	상암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3월 1일
11	김○영	상암동	515남선교회	스스로	3월 8일
12	김○숙	상암동	514여선교회	스스로	3월 8일
13	김○은	상암동	309여선교회	스스로	3월 15일
14	이○윤	도내동	spring청년공동체	스스로	4월 19일
15	장○정		406여선교회	스스로	4월 26일
16	박○인		406여선교회	스스로	4월 26일
17	장○희	상암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5월 3일
18	이○엽	남가좌동	400남선교회	스스로	5월 17일
19	이○아	남가좌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5월 17일
20	조○애	상암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5월 17일
21	염○석	송도동	569남선교회	김애순	5월 24일
22	손○지	송도동	558여선교회	김애순	5월 24일
23	원○호	원흥동	향동캠퍼스	스스로	5월 31일
24	양○훈	구로동	400남선교회	김슬옹	6월 21일
25	김○식	삼성동	향동캠퍼스	스스로	6월 21일

※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 뉴스 Announcements
"상암동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오후 예배안내
오늘 오후예배는 권동환선교사님 선교보고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선교회 월례회 안내
- 일시: 오늘 3부 예배 후 (각 선교회별 지정된 장소)

3. [교회학교위원회]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안내
교회학교 및 스프링(청년)공동체가 여름사역을 통해 영적부흥을 경험하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부 | 하나님의 갑옷! 전신갑주 7.3(금)~5(주일)
- 유치부 | 다윗처럼 :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린이 7.24(금)~26(주일)
- 유년부 | 다윗처럼 7.24(금)~26(주일)
- 소년부 | 예수행전: His Story 8.3(월)~5(수)
- 청소년부 | 내 얼굴을 찾으라 7.30(목)~8.1(토)
- 청년부 | 승리의 주: Never Lost 8.13(목)~15(토)

4. 2026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후원 안내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①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후원헌금] 헌금 봉투를 사용
② 온라인 헌금시 지정으로 'OOO여름후원' 또는 'OOO교회학교'로 표기

5.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례
- 일시: 10월 5일 – 11일
- 장소: 캐나다
-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김용태 목사)

6. [장년양육위원회]_일대일 제자훈련
제14기 동반자 과정과 제11기 양육자 과정이 시작됩니다. 동반자 과정은 모든 성도 신청 가능하며, 양육자 과정은 동반자 수료자 대상입니다.
- 동반자과정: 16주, 1:1 개별 일정
- 양육자과정: 14주, 팀별 일정(목회자 강의)
- 수료예정: 11월 2일(주일) 오후예배
- 문의: 권수용 목사(010-3139-9381)

7. 주일 마포창업복지관 주차장 이용 안내
주일 2부 또는 3부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교회 옆에 있는 창업복지관 주차장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무료주차 후 10분당 500원, 차량 출입구 도보 이용)

8. 6월 실행제직회 결의사항
1. 정선수양관 향토방을 수리하기로 하다.
2. 2026년 가을 종교개혁지 방문 장소를 캐나다로 변경하기로 하다.
3. 대만 선교를 위해 3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하다.
4.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의 2027년 후원금 일부를 2026년에 지원하기로 하다.

9. 서울지방장로회 정기 월례회
- 일시: 7월 18일(토) 오전 11시
- 장소: 등마루교회

10. 담임목사 동정
- 7월 13일(월)~25일(토) : 담임목사 안식월

교회 청소봉사자 (각 선교회) 7월 18일 남선교회(604) 여선교회(624) 7월 25일 남선교회(658) 여선교회(658)

◈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매주일 9:45~10:20 (5층 새가족양육실)

[2부 안내위원] (1층) 김태희 (2층) 이명숙 (본당) 박인선 김선순

[3부 안내위원] (1층)김광동 조월심 (2층) 이성애 (본당) 소경선 안지원 이미화 (4층) 유미경 유희숙 조선화

주차안내 봉사 조정환 **교회차량운행** 남철희 송지훈 조정환 최두환 강효진

온라인 헌금계좌 은행(새마을금고) 예금주(상암동교회)
십일조헌금 0436–0900–0334–1 일반헌금 0436–0900–1381–1

주일 큰 비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1부 묵상예배(오전7:30) 1st Service(Meditation)
인도 & 말씀 : 류욱렬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영상광고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Presider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찬송 Hymn	♣ 찬송가25장 면류관벗어서(1,2,3절)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신명기 29:1-9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나를통하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교자
말씀 Message	목표가 무엇인가?
찬송 Hymn	이세상끝날까지 (찬447장)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폐회송 Closing Hymn	반주자

2부 전통예배(오전9:00) 2nd Service (Traditional)
인도 : 유덕선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영상광고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Presider
찬송 Hymn	♣ 찬송가25장 면류관벗어서(1,2,3절)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공동기도 Congregational Prayer	김순진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후서 4:1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 나를통하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교자
찬양 Choir Song	내가 산을 향하여 (임마누엘 찬양대)
말씀 Message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찬송 Hymn	내 맘이 낙심되며 (찬300장)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폐회송 Closing Hymn	반주자

3부 은혜예배(오전10:30) 3rd Service (Family)
인도 : 한희나, 김은성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찬양단	아바딤 찬양단
합심기도 Choir Song	다 같이
공동기도 Congregational Prayer	민병석 장로
찬양 Choir Song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후서 4:1
말씀 Message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합심기도 Choir Song	다 같이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 나를통하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교자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파송의찬양 Celebration	아바딤 찬양단

♣ 표가 있는 순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모두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늦은 비 예배 (오후 2:30) Sunday afternoon worship
- 기도 백향숙 권사(다음주 이상경 권사)
- 말씀 죽음도 멈추지 못한 복음(사도행전 7:55-8:4)
- 설교자 권동환 선교사

수요 단비 예배 (저녁 7:30) Wednesday night worship
-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11절
- 말씀 기적과 변화
- 설교자 한희나 목사

예배 봉헌 담당 (Usher team)

구분	금주	다음주	봉헌위원
1부	교역자	교역자	교역자
2부	신승중 장로	최창수 장로	송두성 안순자 유희숙 이가희 최금님
3부	조용만 장로	김하동 장로	강경자 김은해 신정화 신화옥 최양숙 이경희

다음주 예배 공동기도담당

구분	기도위원
1부	인도자
2부	전경애 집사(실행제직)
3부	조용만 장로

생명의 말씀 신민규 목사 Message Dr. Shin Min-Gyoo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 (늘 낙심을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고린도후서 4:1

우리 삶에는 낙심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큰 낙심도 있고 작은 낙심도 있습니다. 개인마다 낙심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요즘처럼 환경 자체가 어려울 때는 공통적으로 낙심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계속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갑니다. 석유 값도 오르고, 생활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낙심될 만한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요즘 뚝 떨어지는 것도 있지요. 다른 사람 주식은 오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유독 떨어집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도 계속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함께 영향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 (고후 4:8).

첫째, 직분 의식이 낙심을 이기게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고후 4:1).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직분>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도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주신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직분, 곧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직분입니다. 게다가 이 직분은 값없이 주신 직분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차별 없이 주십니다.

둘째, 양심의 거리낌 없음이 낙심을 이기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고후 4:2). 바울은 말하길 내가 진리를 나타내며 살아온 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낙심을 이기게 해준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16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이 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 2:17). 진리에 다른 것을 섞으면 진리가 흐려집니다. 혼합된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셋째, 겸손한 종의 마음이 낙심을 이기게 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후 4:5). 예수가 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뒤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 종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고생하는 게 당연하지." "종이 섬기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이며, 낙심 대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쓰임 받는 것" 자체를 감사히 여깁니다.

넷째, 믿음이 낙심을 이기게 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 (고후 4:13). 여기서 "기록된 바"는 시편 116:10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라는 고백입니다. 즉, 사망의 고통 같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믿었다"는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 (고후 4:14).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 곧 부활 신앙입니다. 바울은 결론처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8).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십니다.

설교 노트

신민규 담임목사의 1분 컬럼 (Senior Pastor's 1 Minute Column)

인생에는 세 번의 초청이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초청, 사명으로의 초청, 그리고 죽음을 통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초청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 있는 동안, 다시 말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969세까지 산 므두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사명이었습니다. 므두셀라의 이름에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므두셀라가 죽은 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969세까지 산 이유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장발장의 입을 통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사명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사명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느끼며, 감동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강림후 7주 ● 2026년 7월 12일 (제 73권 28호)

상암동교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합 3:2)
거룩한 영성, 따뜻한 인격,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Christlike Disciples)를 세우는
2026년 상암동교회 교회학교
SPRING 청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영유아부 하나님의 갑옷! 전신갑주 7.3(금)~5(주일)
유치부 다윗처럼 7.24(금)~26(주일)
유년부 다윗처럼 7.24(금)~26(주일)
소년부 예수행전 : His Story 8.3(월)~5(수)
청소년부 내 얼굴을 찾으라 7.30(목)~8.1(토)
청년부 승리의 주 : Never Lost 8.13(목)~15(토)

[스프링 청년] 태국 치앙마이 선교 아웃리치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
The Community of Love, Faith, and Hope.

신민규 담임목사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
Rev. Dr. **Min-Gyoo Shin**

상암동교회(구 성암교회)는 1955년 6월 8일 상암동 산기슭 (현재4단지)에서 창립이래 70여년동안 상암동주민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교회로 마을 원주민들 거의가 한번쯤은 나와 본 영혼의 안식처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추억이 있는 교회다. 지금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장자교회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영적 소임에 충실하고 있으며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안산동산교회 원로목사 김인중 목사가 상암동교회 출신이다.

담임목사 신민규 목사는 나사렛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부나사렛대학교(이학사, 문학석사), 미국 나사렛신학대학원(신학석사), 미국 캔사스주립대학교(이학석사, 교육학박사), 미국 에모리대학교(목회상담학박사)를 졸업했다. 미국유학 중 캔사스주에서 정션교회를 개척 담임했고 귀국 후 나사렛대학교에서 10년간 신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와 프린스턴신학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2000년 6월 10일 상암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2년 3월 부터 2016년 2월까지 제6대 나사렛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2013년 6월부터 국제총회이사회 부의장으로 국제 나사렛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대만나사렛신학대학 총장으로 봉직했다. 2019년 3월 제64차 한국총회에서 선출되어 3년 임기의 총회감독과 2021년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역임하였고, 2023년 12월부터 나사렛대학교 제16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상암동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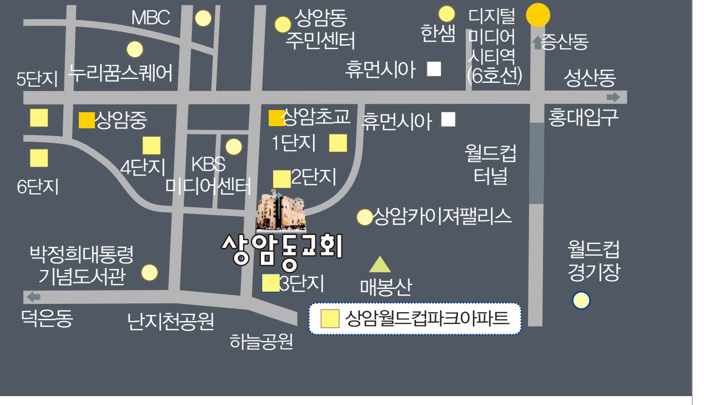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Church Staffs (Associate Pastors, Missionaries, Lay Elders, and Lay Workers)

- 부목사 : 유덕선 권무일 권윤석 조요한 권수용 김용태 이광원 한희나 박충열 김은성
- 협동목사 : 김진국 류욱렬 ■ 선교사 : 권동환 김연범 정치훈 ■ 교육전도사 : 이수진 신은혜 ■ 교육사 : 문은경
- 시무장로 : 김순진 민병석 최창수 도명락 권병수 장옥수 신승중 조용만 원유만 김하동 임재용 이재명
- 원로장로 : 장석춘 권태환 최인철 ■ 은퇴장로 : 박순영 이종태 박수영 차주섭 송연희 유준식
- 명예장로 : 강상대 김무일 박영애 양철호 윤성용 유중종 이두표 강영호 ■ 관리사 : 강신중
- 지휘 : (임마누엘) 최혜경 (할렐루야) 소경옥 ■ 방송·영상 : 김남식 윤지한 조범수 김기호 홍흥표 문정빈 (간사)조성민
- 반주 : (1부) 한희나 (2부) 이현주 (3부) 권은선, 김송희 (향동캠퍼스) 이진화 (새벽) 박은희 소재경

예배시간 안내 Worship Services

예배	시간	장소
주일 1부 예배	주일오전 07:30	2층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오전 09:00	2층 본당
주일 3부 예배	주일오전 10:30	2층 본당
향동캠퍼스 주일예배 1부	주일오전 10:30	향동캠퍼스
향동캠퍼스 주일예배 2부	주일오전 12:30	향동캠퍼스
주일오후예배	주일오후 02:30	2층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06:00	2층 본당
수요예배	수요오후 07:30	2층본당, 향동캠퍼스
토요찬양기도회	토요오후 07:30	2층 본당
청소년부	주일오후 12:00	5층 예배실
청년부	주일오후 12:00	2층 본당
유아부(0-4세)	주일오전 10:30	1층 101호
유치부(5-7세)	주일오전 10:30	3층 소예배실
유년부(1-3학년)	주일오전 10:30	5층 예배실
소년부(4-6학년)	주일오전 10:30	7층 예배실

교회오시는 길 Map & Directions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24 (상암동 1638) 사무실: (02) 309-1906 www.sangamdong.org
정선수양관(신동읍 동강로 836) : 담당사역자 권무일 목사 향동캠퍼스(덕양구 꽃마을로 42, 9층) : 담당사역자 권윤석 목사

憐れみを受けた者として落胆しません…(常に落胆に勝つ聖徒になろうとするなら)
コリント第二 4:1

わたしたちの人生には､落胆するときが突然に訪れます。大きな落胆があったり、小さな落胆もありました。人によって落胆の姿が全て違いますが、最近のように環境自体が困難な時には共通して容易く訪れます。例えば最近継続して上がっているものがあります。物価が上がっています。石油も上がり、生活物価も上がり、それで落胆するような状況になります。反対に最近落ちているものもあります。他の人の株式は上がっても自分の株式だけ目立って落ちてしまう。またウクライナ戦争が長く続き、アメリカとイランとの戦争も継続して影響を与えています。このことにより全世界が共に影響を受け、経済的にも困難を経験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環境だけ見ると落胆することがとても多いです。ところで皆さん、使徒パウロはこのようなことよりもっと大きな困難な中にいま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パウロはこのように告白しました。「わたしたちは、四方から苦しめられても行き詰まらず、途方に暮れても失望せず…」(コリント第二 4:8)。

第一に、職分意識が落胆を勝たせます。パウロは1節で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こういうわけで、わたしたちは、憐れみを受けた者としてこの務めをゆだねられているのですから、落胆しません」(コリント第二 4:1)。パウロが落胆しない根拠が何でしょうか? 自分がこの職分を受けたと言う事実を認知したことです。ところでここでわたしたちが必ず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パウロが言う<職分>はパウロにだけ与えられた使徒職だけを言うのではありません。この職分は全て信じるクリスチャンに神様が共通してくださる職分です。言い換えるなら、救いと命を伝える職分、つまり福音を伝える職分です。信じる者なら誰にでも与えられる職分です。それにこの職分は貴重なものです。お金をだして買えるものではなく、自分の努力で得るものありません。神様の恵みで、差別なく与えられます。

第二に、良心のためらいがないことが落胆に勝たせます。パウロはこのように言います。「かえって、卑劣な隠れた行いを捨て、悪賢く歩まず、神の言葉を曲げず、真理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より、神の御前で自分自身をすべての人の良心にゆだねます」(コリント第二 4:2)。パウロが言うのは真理をあらわし、生きてきたこの人生を振り返る時、神様の前でも人の前でも良心のためらいなく力を注ぎました。これが落胆を勝たせる告白でした。パウロは使徒行伝24:16でもこのように告白しました。「神に対しても人に対しても、責められることのない良心を絶えず保つように努めています。」パウロは福音を伝えるたびに外部から迫害を受けました。特別に同属のユダヤ人たちの迫害が大きかったのです。しかしパウロは真理を妥協しませんでした。何故でしょうか? 福音に他のことを混ぜてはならないからです。「わたしたちは、多くの人々のように神の言葉を売り物にせず… 神の御前でキリストに結ばれて語っています」(コリント第二 2:17)。真理に違うことを混ぜるなら､真理がぼやけてしまいます。混合した福音は人をいかせませんでした。

第三に、謙遜する僕の心が落胆を勝たせます。パウロは5節で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わたしたちは、自分自身を宣べ伝えるのではなく、主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を宣べ伝えています」(コリント第二 4:5)。イエスがわたしの主人であり、わたしは主の僕です。ところで重要な言葉は後ろにあります。「わたしたち自身は、イエスのためにあなたがたに仕える僕なのです。」パウロは福音を伝え、仕える聖徒に向けて自身を「僕」だと言います。これはなんでしょうか? パウロは全ての人に仕える心、僕の心を抱いたと言うのです。僕の心をもつ人は困難なことがあっても容易く落胆しません。何故でしょうか? 僕の心はこのように言います。「僕が苦労するのは当然だ。」「僕が仕えるのは当然だ」と受け止め、落胆の代わりに従うことに進みます。僕の心をもつ人は「用いられること」自体を感謝と考えます。

第四に、信仰が落胆を勝たせます。パウロは13節で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わたしは信じた。それで、わたしは語ったと書いてあるとおり、それと同じ信仰の霊を持っているので…」(コリント第二 4:13)。ここで「書いてあるとおり」は詩篇 116:10を引用したものです。「わたしは信じる､激しい苦しみに襲われていると言うときも」と言う告白です｡つまり死亡の苦痛のようなひどい苦難の中でも「わたしは信じる」と言う告白です｡その信仰の内容は何でしょうか? 14節で言います。「主イエスを復活させた神が、イエスと共にわたしたちをも復活させ…」(コリント第二 4:14)。パウロは死が終わりではないことを信じました｡神様がイエスを再び生き返らせ､わたしたちも必ず生き返ると言う信仰､つまり復活の信仰です｡パウロは結論のようにこのように宣布しました。「わたしたちは見えるものではなく、見えないものに目を注ぎます。見えるものは過ぎ去りますが、見えないものは永遠に存続するからです」(コリント第二 4:18)。「見えるものは過ぎ去りますが、見えないものは永遠に存続するからです。」見えることは少しの間です｡全て消えてしまいます｡全て無くなります｡ところで見えないことは永遠です｡神様は見えませんが永遠なのです。

(번역) 이와카타 집사

既蒙怜悯, 就总不丧胆…(论常胜颓丧)
哥林多后书 4:1

在我们的人生中，丧胆总是不请自来。有大的丧胆，也有小的丧胆。虽因人而异，但像如今这般大环境不好之时，丧胆情绪会普遍临到。譬如，近来总有些东西不断上涨。油价和各类消费品物价上涨的生活压力也是造成丧胆情绪。相反，近来也有些东西在骤然下跌。别人的股票在涨，唯独我手中的股票偏偏下跌。又有乌克兰的战争久拖不决，美国与伊朗之间的战事也持续带来影响。全世界因此一同受到波及，经济上也陷入困境。如果我们专注于环境，叫人丧胆的事实在太多。然而如经所诉使徒保罗却身处比这些更大的艰难之中。保罗却如此告白："我们四面受敌，却不被困住；心里作难，却不至失望……"（林后 4:8）。

第一，职分意识使人胜过丧胆。保罗在第1节这样说："我们既然蒙怜悯，受了这职分，就不丧胆。"（林后 4:1）。保罗不丧胆的根据是什么呢？就是他认定了"我已领受这职分"这一事实。然而在此，有一件我们必须知道的事。保罗所说的"职分"，并非单指赐给他一人的使徒之职。这职分，是 神共同赐给所有信主之人的职分。换言之，就是传扬救恩与生命的职分，即传福音的职分。这是赐给每一个信徒的职分。何况，这职分是白白赐下的职分。它不是用钱能买来的，也不是凭我的努力能挣得的，乃是 神凭着恩典、毫无偏待地赐下的。

第二，无亏的良心使人胜过丧胆。保罗如此说："只将真理表明出来，好在 神面前把自己荐与各人的良心。"（林后 4:2）。保罗说，当他回顾自己彰显真理而活的这一生时，无论在 神面前还是在人面前，他都竭力使良心毫无亏欠。这正是使他胜过丧胆的告白。保罗在使徒行传24:16中也如此告白："我因此自己勉励，对 神对人，常存无亏的良心。"保罗每逢传福音，都从外界受到逼迫，尤其来自同族犹太人的逼迫极大。然而保罗从不与真理妥协。为什么呢？因为福音里绝不可掺杂别的东西。"我们不像那许多人，为利混乱 神的道……乃是在 神面前凭着基督讲道。"（林后 2:17）。真理里一旦掺杂别的，真理便被搅浑。掺杂的福音，救不了人。

第三，谦卑的仆人之心使人胜过丧胆。保罗在第5节这样说："我们原不是传自己，乃是传基督耶稣为主，并且自己因耶稣作你们的仆人。"（林后 4:5）。耶稣是我的主人，我是主的仆人。然而要紧的话在后头："自己因耶稣作你们的仆人。"保罗对着他所传福音、所服事的众圣徒，称自己为"仆人"。这是什么意思呢？这意味着保罗怀着服事众人的心，即仆人的心。怀有仆人之心的人，纵然艰难临到，也不轻易丧胆。为什么呢？因为仆人的心这样说："仆人受苦，本是理所当然。""仆人服事，本是理所当然。"他如此领受，便以顺服代替丧胆，向前而行。怀有仆人之心的人，单单"被主使用"这件事本身，便心存感恩。

第四，信心使人胜过丧胆。保罗在第13节这样说："正如经上所记：'我因信，所以如此说话。'我们也存着同样信心的意念……"（林后 4:13）。这里的"经上所记"，引用的是诗篇116:10。那是一句告白："我说'我遭遇了极大的痛苦'的时候，我仍然相信。"也就是说，纵然身处如死亡之痛楚般极深的苦难中，仍旧告白"我信了"。这信心的内容是什么呢？第14节说："那叫主耶稣复活的，也必叫我们与耶稣一同复活……"（林后 4:14）。保罗相信，死亡并非终结。 神既叫耶稣复活了，也必照样叫我们复活，这便是复活的信仰。保罗如同作结一般，如此宣告："原来我们不是顾念所见的，乃是顾念所不见的；因为所见的是暂时的，所不见的是永远的。"（林后 4:18）。所见的是暂时的，终必消逝，终必归于无有。然而，所不见的却是永远的。 神虽不可见，却是永远长存的。

(번역) 김기호 집사

Therefore, since through God's mercy we have this ministry, we do not lose heart… (To become believers who always overcome discouragement)
(2 Corinthians 4:1)

In our lives, discouragement comes to us at every turn. There is great discouragement, and there is also small discouragement. The shape of discouragement differs from person to person, but when the environment itself is difficult, like these days, discouragement comes more easily to everyone in common. For example, there are things that keep going up these days. Prices go up. Oil prices rise, the cost of living goes up, and so the situation becomes discouraging. On the flip side, there are also things that keep dropping these days. Other people's stocks go up, but only the stocks I hold keep falling. Also, the war in Ukraine drags on,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Iran continues to have an impact. Because of this, the whole world is affected together, and we are all experiencing economic hardship. If we only look at the environment like this, there are too many things to be discouraged about. But you know, the apostle Paul was in much greater difficulties than these. Nevertheless, Paul confesses: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but not crushed; perplexed, but not in despair…" (2 Corinthians 4:8).

First, a sense of ministry helps us overcome discouragement. In verse 1, Paul says: "Therefore, since through God's mercy we have this ministry, we do not lose heart." (2 Corinthians 4:1). What is the basis for Paul not losing heart? It is that he recognized the fact that he had received this ministry. But here, there is something we must understand. The "ministry" Paul speaks of does not merely refer to the apostleship given uniquely to Paul. This ministry is the common ministry that God has given to all believing Christians. In other words, it is the ministry of proclaiming salvation and life—that is, the ministry of the gospel. It is a ministry given to every believer. Moreover, this ministry is given freely. It is not something you can buy with money, nor is it something you obtain by your own effort. God gives it by grace, without discrimination.

Second, a clear conscience helps us overcome discouragement. Paul says: "Rather, we have renounced secret and shameful ways; we do not use deception, nor do we distort the word of God. On the contrary, by setting forth the truth plainly we commend ourselves to everyone's conscience in the sight of God." (2 Corinthians 4:2). Paul says that when he looks back on the life he has lived by presenting the truth, he has strived to have a conscience clear of offense both before God and before people. This, he confesses, helps him overcome discouragement. Paul also confesses in Acts 24:16: "So I strive always to keep my conscience clear before God and man." Whenever Paul preached the gospel, he received persecution from the outside. Particularly, the persecution from his fellow Jews was severe. But Paul did not compromise the truth. Why? Because the gospel must not be mixed with anything else. "Unlike so many, we do not peddle the word of God for profit. On the contrary, in Christ we speak before God with sincerity, as those sent from God." (2 Corinthians 2:17). If you mix other things with the truth, the truth becomes obscured. A mixed gospel cannot save people.

Third, a humble servant's heart helps us overcome discouragement. In verse 5, Paul says: "For what we preach is not ourselves, but Jesus Christ as Lord, and ourselves as your servants for Jesus' sake." (2 Corinthians 4:5). Jesus is my Lord, and I am the Lord's servant. But the important part comes after: "and ourselves as your servants for Jesus' sake." Paul calls himself a "servant" toward the saints he serves while preaching the gospel. What does this mean? Paul had a heart to serve all people—a servant's heart. A person with a servant's heart does not easily lose heart when difficulties come. Why? The servant's heart says: "It's only natural for a servant to suffer." "It's only natural for a servant to serve." Accepting it that way, he moves forward in obedience rather than discouragement. A person with a servant's heart gives thanks for the very fact of being used.

Fourth, faith helps us overcome discouragement. In verse 13, Paul says: "It is written: 'I believed; therefore I have spoken.' Since we have that same spirit of faith, we also believe and therefore speak…" (2 Corinthians 4:13). The phrase "It is written" here is a quotation from Psalm 116:10. It is the confession: "When I said I was greatly afflicted, I still believed." That is, even in the midst of extreme suffering like the anguish of death, he confessed "I believed." And what is the content of that faith? Verse 14 says: "…because we know that the one who raised the Lord Jesus from the dead will also raise us with Jesus and present us with you to himself." (2 Corinthians 4:14). Paul believed that death is not the end. He had the faith that just as God raised Jesus, He will surely raise us as well—that is, the resurrection faith. Paul declares as if in conclusion: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since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2 Corinthians 4:18). What is seen is temporary. It all passes away. It all disappears.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God is unseen, but He is eternal.

(번역) 김은성(Kevin Jin) 목사